“금동대향로 새 장식, 봉황 아닌 ‘금시조’”

진영아 위원, 제1회 미술사 학술상 대상 논문서 주장

중국 內 불교 전래 초기에는
봉황-금시조 비슷하게 인식
시간 지나며 엄격하게 구분

보주, 금시조 도상 대표 특징
목 보주, 佛典에 여의주 서술
금동대향로 등 새 장식 다수
봉황표기의 오류…수정 필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고대 유물에는 새 모양의 장식이나 도상이 있는 경우 많다.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국보인 백제 금동대향로로 향로 정상부에는 목에 보주를 끼운 새 한마리가 날아갈 듯 서 있다. 많은 학자들은 향로 정상의 새가 봉황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동아시아 전반에서 나타나는 보주가 있는 새 문양이 도교의 봉황이 아닌 불교의 ‘금시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2월 25일 제1회 미술사 학술상 논문 공모 시상식을 열고 첫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진영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문화재감정위원에게 시상했다.

진 감정위원은 ‘고대 금시조 도상에 나타난 보주 연구-여의주와 마라가타를 중심으로’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금시조와 봉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불전(佛典)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금시조의 지물인 보주를 살폈다.

진 감정위원에 따르면 금시조는 범어로 ‘가루다’로 불리던 새로 불전에는 가루라, 가유라, 묘시조 등으로 음역·의역됐다. 하지만 중국 불교 전래 초기 낯선 가루라를 봉황으로 이해하고자 했고, 실제 〈해룡왕경〉 역자인 축법호의 역서에는 이 같은 예가 남아있다. 하지만, 5~6세기



국보 백제금동대향로 정상부의 새 장식. 일반적으로 봉황이라고 해석하지만, 목에 보주를 끼고 있는 것을 볼 때 불교의 금시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 접어들면 금시조와 봉황은 다른 새로 인지됐고, 당대(唐代)에 이르러서는 불교의 금시조가 도교의 봉황보다 우월하다는 주장까지 피력됐다.

많은 불전에 묘사된 금시조의 가장 큰 특징은 ‘보주’이며, 이는 봉황과는 차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금시조의 보주가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그 의미도 차이가 있다. 〈법화문구〉 〈유마경문소〉 〈해심밀경소〉 등에는 목에 나타난 금시조의 보주를 ‘여의주’라고 표현하고 있다. 진 감정위원은 “금시조가 죽어 심장만을 남겨 이 여의주를 전륜성황이 취한다는 설화가 있다”면서 “이는 여의주와 전륜성왕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리에 물고 있는 금시조의 구슬을 ‘마라가타’라고 하는데 경전에는 보주의 색이 녹색이며 모든 독기를 물리친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 대해 진 감정위원은 “불교 내에서는 봉황과 금시조를 엄격히 구분해 금시조를 중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고, 특히 금시조와 함께 여러 보주를 언급해 구슬은 금시조 도상의 차별점”이라며 “기존 봉황으로 풀이한 문화유산 가운데 목이나 입에 구슬이 표현된 경우 금시조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보 백제 금동대향로부터 부여 외리 출토 ‘새문양 전돌’, 부여 용정리 출토 ‘새문양 전’, 안압지 출토 ‘새모양 장식’, 무령왕비 두침(베개) 등을 꼽았다.

진 감정위원은 “봉황은 도교를 상징하는 새다. 해당 유물들에 도교가 반영됐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도교와 불교가 습합됐다는 막연한 인식만 낳을 수 있다”며 “유물 출토지가 사찰터이므로 불교적 관점에서 도상학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흥전리사지, 신라 승관사찰로 중창”

불교문화재연구소 · 삼척시, 2월 24일 학술대회



대규모 산지가람으로 추정되는 발굴 성과가 다량으로 나온 삼척 흥전리사지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2월 24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삼척 흥전리사지 조사성과와 활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흥전리사지는 2014년부터 7년 동안의 발굴 조사를 통해 대규모의 산지가람임이 밝혀졌다. 절터에서는 ‘국통(國統)’, ‘화상(和尙)’명 비편 등이 출토됐으며, ‘범웅관아지인(梵雄官衙之印)’이 새겨진 청동인장이 처음 출토돼 문헌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승단조직의 실체가 증명됐다.

이날 박승현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관은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조사의 고고학적 성과’에서 삼척 흥전리사지가 ‘신라 승관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라 승관 제도는 사찰과 교단을 통솔하기 위한 제도”라며 “출토된 청동인장인 ‘범웅관아지인’에서 ‘범웅’은 부처님을 의미해 부처님의 관아, 승관의 도장임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신라 후기 신라 왕실의 지방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지방세력들이 대두되고 김헌창의 난 등이 발생하자 신라 왕실은 불교의 힘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방세력을 견제하려 했다”며 “흥전리사지는 이러한 신라 왕실의 노력으로 중창된 승관사찰이자 선종사원”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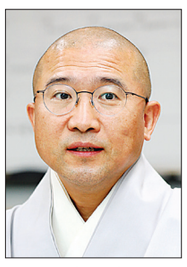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삼척 흥전리사지의 건축(현승욱, 강원대)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기와로 본 신라 조와기술의 수용과 전개(최영희, 강릉원주대) △삼척 흥전리사지의 지형 입지환경(양정석, 허의행, 최세형, 수원대) △삼척 흥전리사지의 입지와 그 역사적 의미(정요근, 서울대) 등이 발표됐다.

삼척시 관계자는 “학술대회를 통해 2021년 11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삼척 흥전리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을 검토 보류한 흥전리사지의 인문학적 검토를 보강해 올해 상반기에 사적지정신청서를 보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리더십 · 명상…스님 박사 논문들 ‘눈길’

오심 스님 한양대서 학위
마가 · 동표 · 현암 스님
중앙대서 박사3명 탄생해


오심 스님


마가 스님


동표 스님


현암 스님

출가 후 법계가 올라가도 스님들은 꾸준히 수행하고 공부한다. 이 같은 노력들은 박사 학위로도 결실을 맺는다. 올해도 적지 않은 스님들이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불교신문사 주간 오심 스님은 한양대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근대불교 종단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구하 천보의 변혁적 리더십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구하천보(天輔九河, 1872~1965) 대종사는 근현대를 대표하는 선지식 중 한 명으로 오심 스님은 대종사의 행적 등을 살피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고찰했다. 특히 오심 스님은 “구하 대종사의 리더십에는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인 △카리스마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영감 △비전 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구하 대종사는 일제강점기의 엄혹한 환경에서 조국의 해방이라는 변화를 모색했다. 해방 이후에는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통도사의 주지로서 사찰의 개혁과 새로운 포교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면서 “이러한 리더십은 분명한 목표 설정, 대중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소통과 화합능력, 적재적소에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는 능력 등의 실천활동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승가대에서는 3명의 스님 박사학위자가 탄생했다. **(사)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중앙승가대 대학원 실천불교학 전공)**은 **‘자비명상의 생리 · 심리학적 효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마가 스님은 서울 소재 사찰에서 자비명상 수강생 38명에게 혈중 호르몬 검사와 심리 검사를 연구 동의를 얻어 시행했고 이 중 2차례 걸친 검사와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모두 실천한 사람은 18명이었다. 검사 결과 수행 이후 모두 세로토닌은 증가했고, 도파민은 유지했다.

마가 스님은 “자비명상을 매일 실천하면서 느끼는 작은 성취들은 수행자들에게 성취감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이는 삶의 의욕과 흥미를 자극했을 것”이라며 “자비명상은 도파민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추측된다”고 밝혔다.

동표 스님(중앙승가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부산광역시 소재 2곳의 학교에서 학생 424명에게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기술과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동표 스님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적 적응 요인인 자아탄력성과 관계 형성 요인인 또래관계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암 스님(중앙승가대 대학원 불교학과)은 **‘윤회사상에 있어서 사유설에 관한 연구-한역 불전을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윤회에 대한 시대별 한역 불전의 전거를 제시하고, 죽음의 과정과 죽음 이후 재생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사유(四有)의 각각 개별유(有)로 분석 · 고찰했다.

신성민 기자

선암매 · 고불매 · 화엄매, 3월 말 만개

문화재청, 한국 4대 매화 개화 시기 발표

한국의 4대 매화로는 일찍이 순천 선암사 선암매, 장성 백양사 고불매, 구례 화엄사 매화, 강릉 오죽헌 율곡매를 꼽는다. 이런 이유로 4대 매화는 2007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매서운 겨우내 추위를 뚫고 꽃을 피우는 매화는 역경을 견디고 지조를 지키는 군자를 닮아 조선 선비들의 사랑을 받았다. 고결함을 상징하는 매화의 올해 만개 시기가 발표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국 매화나무의 개화소식을 2월 24일 알렸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구례 화엄사 매화와 순천 선암사 선암매는 3월 20일경에 개화 예정이다. 장성 백양사 고불매는 이보다 사나흘 뒤인 3월 25일경에 활짝 핀 꽃을 보게 될 전망이다. 화엄사는 매화 사진 공모전인 ‘제2회 홍매화 · 들매화 사진 대회’(3월10일~27일)를 연다.

다만, 노거수인 강릉 오죽헌 율곡매는 2017년 닥친 급작스런 기온상승에 피해를 입어 연내 개화 소식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3월 말에 괴산 송덕리와 영동의 미선나무 꽃이 피고 4월 초순경에는 구례 화엄사의 올벚나무 꽃이, 4월 말에는 내장산의 굴거리나무 꽃이 피는 등 천연기념물 식물의 개화소식도 있다.

문화재청은 “매화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식물이 제철을 따라 꽃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연유산이 일상 속에서 치유와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체험 · 향유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일일시호일

뇌출혈·골절상으로
혼수상태 빠진 가장의 사투

네팔 이주노동자 케빈씨…가족 위해 공장일에 배달까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사경 헤매…병원비 4000만원 훌쩍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